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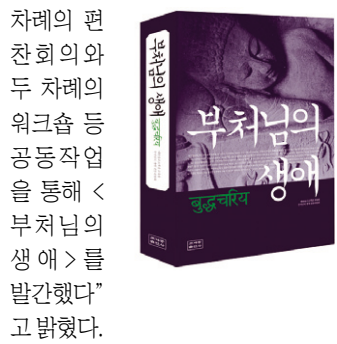
‘부처님 생애’를 읽자

조계종, 2년 작업 끝에 첫 종단본 발간... 관련자료 수록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큰 원력을 세우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삶의 여로가 곧 수행이요, 진리였다.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불교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건이며 삼보에 귀의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부처님의 삶에 관한 책들은 꾸준히 발행돼 왔다. <불소행찬(佛所行讚)>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등의 한문 경전을 번역한 책이나 외국학자들이 쓴 저작물을 번역한 책이 주를 이루다가, 최근 들어 우리나라 학자와 스님들이 쓴 부처님 일대기가 다수 출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책들은 개인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입장을 대변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저자의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 따라 부처님 일대기가 전혀 다르게 묘사돼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부처님 생애를 조명키로 하고, 불타론(佛陀論) 관련 전공학자 7인을 편찬위원으로 위촉, 종단본 <부처님 생애> (조계종출판사)를 편찬했다. 한국불교사에서 통일된 ‘부처님 생애’가 편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승) ‘부처님 생애 편찬위원회’(위원장 정인)는 1월 14일 “2년 여 동안 10여



차례의 편찬회의와 두 차례의 워크숍 등 공동작업을 통해 <부처님의 생애>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인 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을 비롯해 해주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조준호 고려대 철학과 연구교수, 유근자 동국대 예술대학 강사, 성재현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등 편찬위원들은 <부처님의 생애>에서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과 성장, 구도와 깨달음, 전법과 교화, 그리고 입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기적으로 서술했다.

편찬위원들은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부처님의 삶을 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로 본문을 기술했으며, 소설가 정찬주씨의 운문 과정도 거쳤다. 편찬위원들은 또 한문본전은 물론 한글본과 산스크리트본 등 다양한 원전을 참조했으며, 본문 곳곳

에 부처님의 생애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간다라 ‘불전도(佛傳圖)’를 수록해 내용의 이해를 돕고 사실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이 책은 전공자들에게도 유익하도록 풍부하고 다양한 부록을 수록했다. 부처님 가계도(家系圖), 부처님 일생 연표와 함께 부처님 재세시 설법 장소, 부처님 재세시 강가강유역, 부처님 안거 장소 등의 지도와 정보를 상세하게 게재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부처님의 수행 교화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기(佛紀) 산정 기준, 인도불교사 연표, 인명 지명 대조표(浬리본, 산스크리트본, 한문본)를 수록하는 한편 53장의 ‘불전도’에 대한 자세한 해설까지 곁들였다.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보문 스님은 “검증된 학술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종단본 <부처님의 생애>는 불교가 생소한 일반 독자들에게는 부처님을 소개하는 교양서이면서 전공자들에게는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님의 생애>는 조계종 표준 <금강경>과 마찬가지로 종단 산하 불교교양대학과 승가대학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표준 <금강경>이 10만 부 이상 판매된 만큼, 이 책은 그보다 훨씬 많이 보급될 전망이다. 김성우 기자



종단협 회장 지승 스님(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불교 각 종단 대표들이 불교계의 사회적 대안 제시에 적극 나설 것을 서원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사회 통합·소통의 길에 앞장서자”

종단협, 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14일 조계사서 봉행

불교지도자들이 모여 불법홍포와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가 1월 14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승) 주최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종단협 회장 지승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들은 불교각계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발원했다. 법회는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의 개회사,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

의 회화를 시작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등 각 종단 대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의 헌화가 진행됐다. 또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신년하례, 통갈(誦講),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의 축원, 지승 스님의 법어,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의 기원사,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 정사의 신년인사 등이 이어졌다. 지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경인년

새해에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한 갈등에 불교계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관점에서 세상을 안락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 정사도 사회화합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불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주요영 특임장관, 박재완 청와대 수석 등의 축사가 이어진 가운데, 유

인촌 문광부 장관은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화해·통합을 이루는데 불교계가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일로영일(勞永逸)의 자세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가 대중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이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불법홍포와 국민화합을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법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법회에는 지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 조계종 교육원장 현승 스님, 포교원장 혜종 스님 등 각 종단 중진 스님, 유인촌 문광부 장관, 주요영 특임장관, 김진표 민주당 국회의원, 박재완 청와대 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9 달라아라마 신년법회 ▶14 선지식-현각 스님 ▶17 문화-유심작품상 김초혜 등

아이티 돕기 교계 팔 걷어붙여

조계종·지구촌공생회 등 자비행

2000년만의 최대 지진피해를 입은 아이티에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 각계가 자비행을 펼친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조계종 기획실장)은 1월 15일 아이티 대지진으로 인한 참사에 대해 예도 논평을 발표하고 긴급재해구호기금 5만 불 등 구호활동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담 스님은 “아이티에서 발생한 진도 7.0 이상의 강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한다”며 “아울러 부상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아이티 국민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원담 스님은 이어 “조계종은 이번 지진 참사로 피해를 입은 아이티 국민들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이에 따라 종단 긴급재해구호기금 뿐만 아니라 범종단 차원의 모금운동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불교 종단의 지원책과 함께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도 아이티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14일부터 아이티 지진피해 복구 긴급구호 캠페인을 실시한

다고 밝혔다. 지구촌공생회는 모금된 금액을 UN지정기탁 등을 통해 아이티 현지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월주 스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종교 사상, 이념을 넘어서 이뤄져야 한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더 큰 희망을 만든다”며 불자들의 자비행을 당부했다.

한편, 1월 12일 대지진이 발생한 아이티는 현재 10여 만 명의 사망자와 300여 만 명 이재민이 발생하고 기간시설이 대부분 붕괴되는 등 국가 기능자체가 마비된 상태다.

모금계좌: 아름다운동행(농협 301-0029-6115-71), 지구촌공생회(기업은행 062-070908-01-011) 노덕현·박선주 기자

생명의 우물 5년 1000개 ‘결실’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서 기념식 개최

지구촌공생회(Good Hands, 이사장 월주)가 2004년 11월부터 캄보디아에서 추진해온 ‘생명의 우물’ 사업이 5년 만에 1000개를 완공하는 결실을 맺었다. 월주 스님과 지구촌공생회 관계자 등 40여명은 1월 10일부터 5일간 캄보디아 아를 방문해 기념식을 가졌다. 11일 캄보디아 앙코 제이군 다니엔 지아싱고등학교에서 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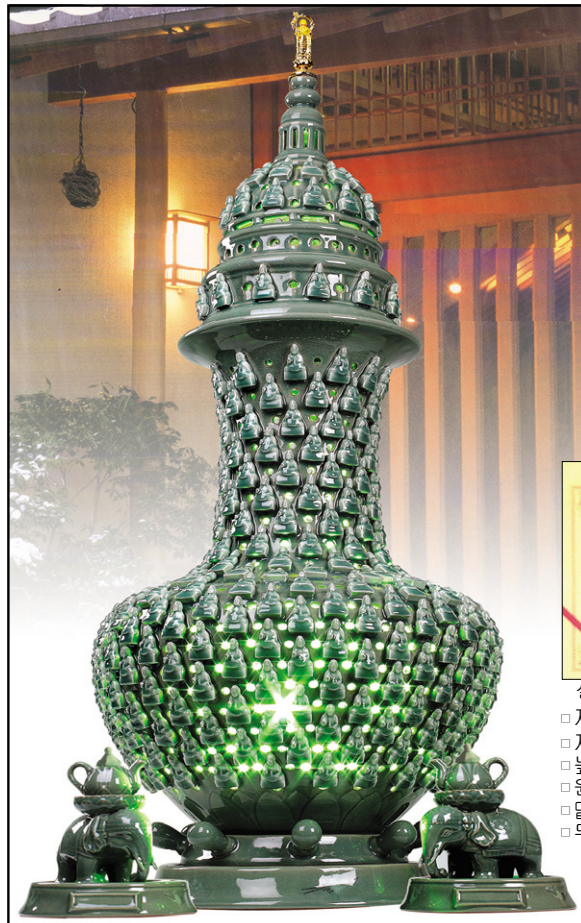
‘생명의 우물 1000 완공식’ 행사에는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차관 소파라 장관과 현지 주지사, 학생,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 국왕은 소파라 장관을 통해 월주 스님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지구촌공생회는 물 부족과 수인성 질환으로 영유아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심

각성을 파악하고 2004년부터 캄포트·따께오주에 우물 사업을 진행했다. 늘 식수가 부족해 우기에는 빗물을 모아 활용하고, 건기에는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마셔야 했다. 이렇듯 많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됐던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 지구촌공생회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을 펼쳐왔다.

우물 1개 완공 비용은 약 70만 원. 많은 이들의 후원에 힘입어 1000개의 생명수가 제공됐다.

1000번째 ‘생명의 우물’ 후원 주인공으로 선정된 송명례 할머니(71)는 2009년 12월 전 재산 1억 1000만원을 공생회에 회사해 부처님의 고향인 네팔 툼비니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건립을 당부한 바 있다. 할머니는 ‘생명의 우물’ 사업에 관한 얘기를 듣고 70만 원을 보시해 1000번째 우물의 주인공이 된 것.

지구촌공생회는 올해도 우물 250여 개를 더 건설할 계획이며 아프리카·몽골 등에도 우물 사업을 늘려갈 방침이다. (02)455-9596 박선주 기자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순금천불보안법륜대
 □ 재질: 대한민국 상감장차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업장소멸 법륜대 (윤장대)안에 금강경 차곡차곡 !!!

지금 수미단 좌우 법륜대 안으로 금강경(1,080권)을 봉안하는데 줄이 연이어 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석문의범과 전생록에 기록된 개개인의 금강경 목은 빛을 해탈하기 위하여 사람마다 각각 다른 숫자로 봉장하여 법륜대를 직접 돌리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법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장차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로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계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地藏,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